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구성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제12기 이사진이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중묵 전 부산 MBC 사장, 권태선 전 KBS 시청자위원장,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 양재 변호사, 김도인 현 방문진 이사, 김석환 전 KNN 사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능호 전 MBC 기자, 임정환 전 MBC

보도본부 센터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박신서 전 MBC 편성국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은 8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연장자인 권태선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권 신임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편집인,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7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노성대(보도) 300만원
- 박성희(관리) 100만원
- 민용기(편제) 50만원
- 정보영(ANN) 50만원
- 이상범(관리) 50만원
- 우종범(편제) 30만원
- 김영균(관리) 15만원



노성대



박성희



민용기



정보영



이상범



우종범



김영균

차인태 회장, 권태선 이사장과 상견례 가져

9월 8일 차인태 사우회장은 상암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모임을 가졌다. 박신서 방문진 감사와 김상옥 상임부회장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차 회장은 사우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사우회를 지원해준 MBC와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권 이사장은 '고등학교가 정동 근처라서 일찍부

터 MBC에 호감을 가졌었다'면서 앞으로 'MBC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우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

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원고를 기다립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 눈도 침침하고 기억도 전 같지 않은 분들이 뭔가 자기 얘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 탓에 회보를 만들면서 원고를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쓰실만한 분이 냉정하게 사양할 때는 내심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 많은 글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를 가져다 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글만 실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우회원들이 읽고서 공감하거나 최소한 수긍할만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글은 내용이 무엇이

든 신고자 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일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 용지 한 장 반이면 됩니다. 가급적 읽을거리가 풍부한 사우회보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올림.

더없이 완벽한 현재의 가치를 더 앞선 열정으로 깨우는것,
바로 **다리**가 이끌어 갑니다.

www.dalee.co.kr



주요사업 **다리**

본 사/제1공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원로 485번길 78 (성왕동 1258-87) 제1공장 2다, 209
TEL : 031-498-9600 FAX : 031-497-9600
영입본부/기술연구소 TEL : 080-905-7000

해외법인
Ho Chi Minh / DALEE Vietnam Head Office TEL : 84 28 7300 9600
SAVA-16-10 The Sun Avenue, No. 28, Mai Chi Tho, An Phu, District 2, HCMC
Fax: +84 28 3636 3503

Vung Tau / DALEE Vietnam Factory TEL : 84 25 4399 9600
Lot 54, D.02 Street, Chau Duc IP, Suoi Nghe, Chau Duc, Ba Ria - Vung Tau

DALEE CORPORAT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Group

회/원/동/정



▶구본홍(보도)

온라인 문학저널 '월간 한국문단' 공모 수필 부문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바치며'와 '모세의 기적' 등 두 편을 응모하여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 수필가로 등단했다.



▶이우호(보도)

7월 26일 운전면허 시험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도로교통공단 방송이사로 선임돼 공단이 운영하는 TBN(한국교통방송)의 본부장으로 일하게 됐다.

▶박성희(관리)

8월 1일,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숭의여자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박회원은 1984년 입사.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 이후 백석대학교 교수, 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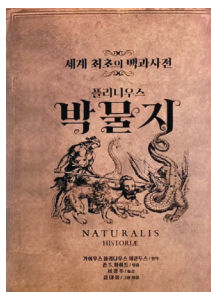
사장을 지냈다.



▶서경주(편제)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 박물학자인 플리니우스가 77년경에 펴낸 세

계 최초의 백과사전 '박물지'를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했다. 박물지는 동물, 식물, 광물, 지



질 등의 사물이나 현상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강식(관리)

8월 19일 (주)세미라이팅 비상임 고문으로 취임했다. (주)세미라이팅은 2009년 설립되어 산업용/일반용 LED조명기구 및 LED방폭 등을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김용현(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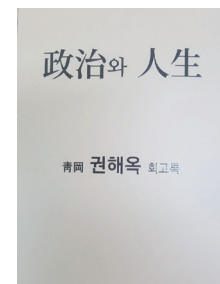
책 제목을 이해인 수녀의 시 "평화로 가는 길"에서 차용했다. 미국 이민생활 40년 동안 미주 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등에서 독자 및 청취자들과 꾸

준히 나눴던 평화에 대한 담론과 해외 여러 동포들과의 토론을 묶어 책으로 발간했다.



▶권해옥(특별)

9월 1일 靑岡 권해옥 회고록 '政治와人生'을 출간했다. MBC감사, 국회의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강태선(기술)

1985년 입사. 기술연구소, 종합편집부, 보도기술부 등 근무. 2021년 정년퇴직.



한명석(편제)

1986년 ANN 입사. TV편성부, 영화부, 외주제작국 등 근무. 2021년 6월 정년퇴직.



김영석(기술)

1995년 기술직 입사. 방송인프라본부 기술인프라국 송신부 부장. 2020년 명예퇴직.



홍주화(기술)

1987년 입사. 라디오 송출기술부, 토당송신소, 제작기술국 중계부 등 근무.



김유찬(보도)

1986년 입사. 정치부, 국제부, 전국부, 홍보심의국 등 근무. 2019년 정년퇴직.



정보영(ANN)

1986년 입사. 1993년 퇴사. 동서대 겸임교수. 현 부산 정보영스피치/CL연구소 대표.



임정환(보도)

1986년 입사. 정치, 사회, 국제부장. 베이징특파원 역임.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우회 부동산 중개마당' 중간 보고입니다



박진석(기술)

사우회원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 공유, 수수료 50% 할인, 지인 물건 계약 시 적절한 보상 등, 일반 회원들과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 상호간의 윈윈전략으로 시작한 '부동산 중개마당'은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셨고, 물건에 대한 상담도 여러 건 접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강화도 모처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팔려고 하는 회원이 있어서 외부에 노출한 결과 관심 고객이 나타나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브리핑을 시도했었는데 조건이 일부 미흡하여 계약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최근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경기도 모처에 있는 상당한 규모의 임야와 전답'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매도 가능성 여부와 시세 파악을 의뢰한 회원이 있어서 현재 자료분석과 거래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 건설 가능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매도의뢰가 들어와서 매수를 희망하는 회사와 접촉하여 거래 성

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서초구에 있는 그린벨트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보유한 회원이 부지 일부를 분할매각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토지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소유자 입회 하에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부친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매도해 달라는 회원이 있어서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충청도 바닷가에 펜션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팔아달라는 회원이 있어서 조건에 맞는 고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분들로부터 다양한 사안의 부동산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세무 관련 문의가 많았는데 이 경우 '부동산계산기'라는 어플을 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사우회카페(cafe.daum.net/mbcsau)에 개설된 '사우회 부동산 중개마당'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매주 업데이트하여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마당'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어떠한 상담이라도 거리까지 마시고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박진석
(010-9106-1365)

경조사항

구순: 이대섭(편제) 33.10.8
 결혼: 송원근(관리) 아들 8.21 이은규(편제) 딸 8.21 구영희(보도) 딸 8.28
 정홍보(보도) 딸 9.4 정명환(대구) 딸 9.5
 부음: 신동석(관리) 부친상 7.18 양운수(기술) 장인상 8.19
 권영삼(관리) 모친상 8.20 백종문(편제) 모친상 8.22
 김정옥(편제) 빙모상 8.22 이영생(관리) 배우자상 8.30
 김금봉(관리) 배우자상 9.2 최문순(보도) 빙부상 9.8

연회비

2021년: 한승영
 2021년: 김휘성 마병두 이연구 김 용(완납) 권수훈 오순심 홍학표
 박종완 이영호
 2022년: 김삼량(완납) 2023년: 정병준(완납) 2031년: 구영희(완납)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이연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662 삼성라프빌 422호
 최종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1
 보도: 김광백 서울 은평구 진관2로57-7
 정병운 서울 은평구 진관4로77
 김창석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8길14
 기술: 김광곤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2길8
 박건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13
 관리: 박춘우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정길
 신견옥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67
 이창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5로417
 정연곤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늪언덕길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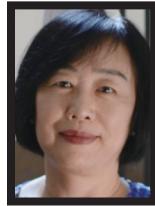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해원(편제)
 7월 19일 별세.
 향년 87세. 국
 립영화제작소,
 KBS를 거쳐
 1969년 MBC 입
 사. 영화부장, 편성위원 역임.
 1992년 퇴직 후 해원수출입공
 사 대표를 지냈다.



유수열(편제)
 8월 12일 별세.
 향년 82세. 1969
 년 공채 1기 TV
 PD로 입사. TV제
 작국장, 문화사업
 국장, 미주지사장, 춘천MBC 사
 장, 유수열코메디아카데미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민애(관리)
 8월 14일 별
 세. 향년 62
 세. 1985년 입
 사. 자료부에서
 1998년까지 근
 무한 후 퇴직. 캐나다로 이주하
 여 현지에서 투병 중 별세했다.



민영기(관리)
 8월 16일 별세.
 향년 78세. 1968
 년 입사. 총무부
 장, 인사부장, 기
 획실 부실장, 울
 산MBC 사장, 진주MBC 사장,
 MBC사우회 상임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환(업무)
 8월 26일 별세. 향년 94세. 1969년 광주MBC 업무
 국장, 연합광고 총무국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사,
 1974년~1980년 (주)문화경향 상무이사 등을 역임
 했다.

유수열 선배님을 추모합니다



지석원(편제)

이게 무슨 황당
 한 소식인가.
 어쩌다 나이 애
 기가 나올라치
 면 손사래를 치
 며 잘못된 호적
 과 당신의 젊은
 나이를 주장하셨
 고, 그에 걸맞게
 칠십대까지도 시트콤을 직접 연출
 하셨으며, 최근에는 CBS미디어와
 함께 '코미디학교'를 설립했고, 작
 가와 연기자를 양성해서 '리바이벌
 웃으면 복이와요'를 이루어 내셨다
 고 너무도 뽐뽐하게 동분서주하시
 던 분인데, 그런 유수열 선배가 떠
 나셨다는 부음이라니!

“미안해요 지석원씨, 같이 오자
 고 해서...”
 “아휴 아닙니다. 참 좋은 경험했
 습니다”

1979년 겨울 어느날 금호동의
 한 허름한 여관방. 어젯밤 늦게 근
 처 산동네에 있는 이주일 씨의 집
 을 찾아가 밤무대를 마치고 돌아
 온 그를 만나서 긴 시간을 보내고
 통금 때문에 여관을 찾아들었다.
 당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무슨
 무슨 바라데이쇼'같은 극장공연

에서 진행자 역할을 했던 이주일
 씨는 대중에게 별로 이름이 알려
 지지 않은, 말하자면 무명의 공연
 무대 MC였다.

그러던 그가 얼마 전 민영방송
 인 TBC에 몇 번 출연했는데 ‘못생
 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 드릴
 라구~’ 등 그이만의 독특한 유행
 어와 ‘수지큐’음악에 맞춘 코믹댄
 스 등이 그의 개성있는 용모와 함
 께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먹혀 들
 면서 장안의 화제를 일으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장래가 촉망되
 는 신선한(?) 대형신인이 되어버
 린 즈음이었다.

낮에 사무실에서 유 선배가 “오
 늘 밤 이주일 씨 집에 가자”하시
 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밤
 에는 그 사람도 일 끝내고 피곤할
 텐데 내일 낮에 가서 만나는 건 어
 뻐까요?”했더니 “그럼 또 그만큼
 늦는 거지요. 쿵쿵, 일 있으면 그
 냥 나 혼자 다녀 올게요”하시는
 말씀에 꺾소리도 못하고 따라나
 선 길이었다.

그날 밤 주소를 들고 물어 물어
 찾아간 집에서 이주일 씨를 만난
 유 선배는 초면인사를 나누고는
 곧 ‘왜 당신은 MBC에서 활동해

야 하는가’를 그에게 설명하기 시
 작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리하겠
 노라고 답을 주기 어려운 입장의
 그가 시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
 자 그로부터 2시간 남짓 계속되는
 유 선배의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솔직히 난 그 말씀 내용보다 그 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상
 대를 설득하려 이어지는 유 선배
 의 끈기에 엄청나게 놀라고 또 감
 명받고 있었다. “아~! 이런 정도
 의 인내와 끈기로 일을 해야 하는
 거로구나!!”

그 얼마 후 결국 이주일 씨는
 MBC를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당
 대 최고인기 코미디언을 거쳐 국
 회의원으로까지 승승장구하였고
 MBC코미디 역시 이주일 씨와 함
 께 또 한번의 비상을 했던 멋진 원
 인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우리가 유 선배로부터
 배운 제작 노하우 중에는 대본과
 연출 외적인 이런 끈기와 인내와
 치열함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고 이는 후배들에게 소중한 제
 작무기가 되었다. PD로서의 온
 세월을 코미디에 바치신 유수열
 선배, 미처 이루지 못한 꿈들을 두
 고 그냥 떠나기가 얼마나 아쉬우



셨을까.

주마등처럼 흐르는이런 저런 추
 역과 상념을 안고 유 선배 빈소를
 찾았다. 후배의 안쓰러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영정 속 유
 선배는 아주 편한 모습으로 환하
 게 웃고 계셨다. 생전에 주위의 온
 갖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셨
 던 만큼이나 빈소를 가득 메운 조
 화와 꽃더미에 둘러싸여 평생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주님 곁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런 걸까.

인터뷰

송의여자대학교 박성희 총장



▶ 학교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서울 남산에 있는 송의여대는 1903년 사무엘 마펏(Moffett)목사가 세운 송의여학교가 모태니까 118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자진폐교를 감행하기도 했었는데,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실공히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산실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운 학교니 만큼 교내에 교회도 있고, 채플시간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성악가이자 배우였던 윤심덕,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독립운동을 했던 권기옥, 전이화여대 김옥길 총장 등의 여류명사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근래에는 박찬숙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배출한 송의농구팀이 유명했구요, 7,80년대 대중음악과 클래식 공연장으로 손꼽히던 송의음악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남산외교구락부' 건물은 현재 우리 학교 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2년제, 3년제, 4년제 16개 학과에 3,200여명이 재학 중입니다.

▶ 방송 경영에 몰두하다가 학교 경영을 맡게된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전 직장인 OBS(2017년 12월~2021년 6월까지 근무)가 마지막 일터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으로 오게 돼 뜻밖이긴 하지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MBC를 떠난 후 '전문경력교수' 자격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방송사 분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진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과 일상을 같이 한다는 일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강의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수진에 대한 지원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자 합

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 해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취임하신지 한달이 넘었는데 업무 파악은 대략 끝났나요.

8월 1일 취임했는데, 8월 30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고 9월 10일부터 신입생 수시모집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행정 각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구요, 학부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우리 대학이 처한 상황과 현안,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대학 내 각 부서의 보직자들이 참석하는 확대교무회의, 모든 교수들이 참석하는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과의 수시 접촉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학교 외부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팬데믹 상황이라 더 어려움이 크겠지만, 현재 대학이 안고있는 기본적인 어려움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령인구가 줄면서 모든 학교들이 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이 전체 지원자 수를 10%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금 수입이 해마다 감소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큼니다. 송의여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상당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송의는 재정자립을 목표로 삼고 탄탄한 재정 운영을 한 결과 어느 대학보다 낮은 수준의 등록금과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에서 중요한 데이터 수치가 시청률과 경영수지 아닙니까. 대학에서의 핵심 데이터 지표는 신입생 증원률, 재학생 증원률, 졸업생 취업률 등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표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화가 늘어나면서 대학 학과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의 부조화가 생기고 취업률 저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학과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대학 졸업 후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취임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피력하셨나요.

총장이라는 직책은 교육자인 동시에 최고 경영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이 처한 위기상황을 강조하게 되더군요. 그 외에 학생을 학교의 중심에 두는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의욕과 사명감을 고취함으로써 전체 대학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는 구조혁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했습니다.

▶ 임기동안 총장으로서 꼭 해야겠다(또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대외 브랜드 형성>과 <내부 역량강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송의는 역사도 오래 됐고, 서울 중심부인 명동역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송의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남산을 뒷산으로 하고 명동을 앞마당으로 하는 탄탄한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전문경영인 총장에게 거는 기대를 축약하면 첫째는 대학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므로 내부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통합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라는 것과 둘째는 대학이 직면한 여러 위기적 요소를 타개하고 구조적 변화와 미래 발전을 도모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교직원들의 통합된 에너지를 끌어내고,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탄탄한 대학교를 만드는 것, 저는 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 방송에서 익힌 것들 중 학교에서도 유용한 점도 있겠죠.

당연히 방송사에서의

경영 경험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MBC의 조직문화가 대학의 문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었던 시절의 MBC는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전방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각 전문분야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 OBS에서는 힘든 외부환경과 어려운 내부여건을 견디면서 생존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OBS에서 주주와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 외부의 이해관계자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조 속에서 일하다 보니, 과거 MBC에서 마치 내가 주인인 듯이 일했던 시절이 참 행복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전성기 때 MBC의 역동적인 조직문화의 경험, OBS에서의 생존을 향한 강인한 노력을 기울인 경험 등이 송의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에너지를 통합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듯이, 대학 내 각 파트의 소통과 협력, 조직 목표와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능력과 성과의 공정한 평가의 실행 등 기본 원칙에 입각한 대학운영을 염두에 두고 경영하겠습니다.

▶ 사우회 선,후배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이미 말씀드린대로 지하철 명동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남산길 산책 겸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송의학교 근처에는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꼭 한번 찾아 주시구요, 앞으로는 송의와 박성희를 묶어서 기억해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사우회 선후배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편집장)



평화로 가는 길



김용현(미주)

■바이든 시대에 빛날 한국의 역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순항 중이다.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국민 통합에 내 영혼을 걸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이후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다른 세상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 어느 지도자나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말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 미국에서는 그 말이 너무나 절실한 절규로 다가온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마음을 해집어 놓은 상처는 너무 컸다. 그 심각한 분열을 바이든이 정말 봉합해낼 수 있을까. 트럼프가 좋다고 그에게 표를 던진 7천 4백만 표심을 포용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는 미국의 저력이 있기에 바이든은 반드시 링컨의 통합 역사를 되살릴 것으로 믿는 의견이 다수다.

지금 미국에서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개혁이다. 바이든은 한편으로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국가 간, 인종 간, 빈부 간 갈등 현안의 구조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시간을 늦추진 했으나 트럼프에 대한 탄핵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과 개혁이라는 조금은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 똑같은 진보 정권이며 촛불혁명을 통해 설립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 다소 고전하고 있는 것은 통합을 위해 개혁을 머뭇거리는 사이 개혁도 통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통합을 내세우며 오만해져도 안되지만 통합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을 멈추지도 말아야 한다. 통합과 개혁은 선후의 문제도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 희망이 보이는 것은 미국인들이 지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언론들이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이 일에 협력하고 나서자 트럼프를 지지하던 극우단체들이 태도를 바꿨고, 공화당도 진보적 전환으로의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의 탄생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바이든은 국제적 현안들을 외교적 해법으로 접근하며 햇볕정책도 지지했던 합리적인 정치인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제일주의' '일방주의'를 벗어나 모든 외교적 현안을 동맹과 더불어 다자주의多者主義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대북정책의 큰 틀도 밝혀졌다.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와 인권 문제를 활용할 것이며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트럼프 식의 '일괄타결'과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의 중간지대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관리들이나 미주 동포사회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해온 내용은 '절대로 오바마 시대의 실패한 대북 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회담을 버려선 안 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더 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4.27판문점선언'까지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유럽의 쇠락衰落에 이어 아시아가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억압과 군사주의를 배격하며 아시아의 융성隆盛과 평화를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돌아온 미국'과 바이든 시대의 도래로 아시아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거인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우뚝 빛날 때가 됐다.

■우리들의 '아리랑'을 위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 1년을 넘긴다.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또 있었을까. 그 전염병으로 가까운 친구를 세 명이나 잃었고 알게 모르게 더 많은 아픔들이 주변에서 전해졌었다. 최악의 두려움과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보내야 했던 2020년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LA 시내로 향하는 도로나 출퇴근 시간의 메트로 링크가 한가해진 모습이 결코 반갑지 않은 것은, 직장을 잃고 등 쫓길에 막혀 집에 앉았을 우리들의 이웃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의 재택근무 사정도 있었지만, 마켓에 가보면 확실히 이제 30대나 40대가 한인사회의 주역이 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세상 일에 근심과 불만을 혼자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 것에 비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견해 보이는지 모른다. 세월은 그렇게 가고 있다. 세월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 것이기에 어른들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 이민사회의 발전이 늦어진다고 해도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넷물도 때로는 그 흐름을 막으려는 돌맹이와 바위를 만나지만 물보라를 잠시 일으킬 뿐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을 안다.

집에 갇혀 지내는 동안 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 이미 두 번이나 방송된 바 있는 '아리랑'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야기는 1903년 1월 인천항을 출발하는 선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로부터 100년 동안의 긴 여행. 이민자는 나그네고 나그네는 여행자다. 그래서 1부는 'Korean American의 여행'이라고 했다. 그 100년 동안 나그네가 걸어 온 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회한이 배어 있었는지 모른

다. 감독을 맡은 '탐 고프만'씨는 전편全篇에 '아리랑'을 배음으로 깔면서 나그네가 겪은 일들을 비교적 담담하고 섬세하게 끌어간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꿈이 있었다. 그래서 2부는 'Korean American의 꿈'으로 설정하고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펼쳐고 있다.



'아리랑'을 보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이민 이야기 '미나리'가 주류 사회에 널리 알려지더니 윤여정 씨가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아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 때마침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을 때라 새삼 이민자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아리랑'과 '미나리'를 보면서 우리 이민자들이 각자 개인의 이민사도 그렇게 기록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은 '우리들의 아리랑'이며 '우리들의 미나리'다. 가족마다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연과, 이 땅에 옮겨와 저마다 치열하게 살아 온 기록들은 모두가 소중한 역사다.

요즘은 영상기술들이 많이 보급돼 문자 기록과 사진, 동영상을 묶어 가족 다큐멘터리를 만들되 원고는 영어로 만들고 내레이션은 자녀들 목소리를 쓰는 것이 좋겠다. 개인의 역사가 모이면 우리 한인사회의 이민사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취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월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역사를 생각한다. 이민 100주년을 보낸 지 20년 만에 이 땅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은 심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88 서울 올림픽 직후 이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겪어봤고, 90년대 초 연이어 닥친 지진과 폭동으로 인재와 천재를 이겨낸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 미완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MBC 창사 60주년 기념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차 선생은 작가라 카던데...



故 차범석(1924~2006)

1961년 초여름. HBC(처음엔 MBC가 아니었다)의 첫 전파 발사를 앞두고 나는 날마다 인사동 동일가구점 5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게 됐다. 여학교 교사였던 내게 ‘방송국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한 사람은 대학시절 연극으로 맺어진 친구 최창봉 형이었다. 당시 부산문화방송에서 상업방송의 전파가 나가고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민간방송국이 서울에 창설되니까 새로운 사람들의 손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민간방송국을 발족시키자’는 최 형의 권유는 내게 흥분이자 모험이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송’이란 관영방송 KBS를 표적으로 한 말이었다. 이 야심적인 모험은 편성에 정순일, 음악에 이호로, 연예에 차범석, 총수에 최창봉이라는 ‘4頭마차’로 출범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개국한 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성우를 키우는 일이었다. KBS나 CBS의 기성 성우는 피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찾는 작업으로, 천 명이 넘는 지망자 가운데 서른 여섯명을 뽑아 두 달간 연수를 시키고 다시 오디션을 거쳐 남녀 스무명을 최종 선발했다. 여자는 전경자, 이향미, 안광자, 김애리사, 김석옥, 최선자,

김진희, 김영옥, 나문희, 김소라, 백수련, 권영주 등이고 남자는 최응찬, 김성희, 원창목, 피세영, 김황식, 전종훈 등이었다. 그런데 강습기간 중 최선자가 집안 일로 시골에 갔다가 최종전형이 끝난 다음에 올라왔다. 지금은 관록있는 연극배우, 중견 성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당시 최선자는 생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어내린 ‘포니테일’스타일에 촌티가 가시지 않은 스무살 처녀였다.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차갑게 대답하는 내게 최선자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했다. 화장기 없고 미모도 아닌 최선자의 그런 모습이 어딘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최창봉 형과 의논한 끝에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감수성’을 인정하여 어렵사리 1기생 명단에 넣었다. 훗날 그녀가 ‘그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며 ‘나는 역시 사람 볼 줄을 안다’고 으쓱했던 기억이 있다.

서울에 민간방송이 서게 된다는 소문은 장안에 퍼졌건만 개국 일자는 오리무중이었다. 이대로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렸다. 부산문화에서 발탁된 손형식, 이정우 등은 구석방에서 자취를 하며 기다렸지만 기약없는 개국날에 월급도 나오자 않아 창립책임자인 정환옥 전무와 김영출 상무에게 가불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거듭되니 화가 나서 ‘다시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복도가 떠나 가게 아우성을 치기도 했다. 제일 괴로운 시간은 점심 때였다. 밥은 먹어야겠는데 혼자만 슬쩍 나갈 수도 없고, 함께 가자니 비용이 벅차고, 각자 계산을 따로 하자니 인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 ‘점심하자’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그날 점심값을 책임지게 되었다. 나는 학

교를 그만두면서 받은 쥐꼬리 만한 퇴직금이 있어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라 몇 차례는 내가 앞장을 섰지만 그것도 거듭되니 모두가 미안해하고 불편해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 어느날, 간부회의가 열렸다. 사장은 ‘두 달 안에 개국 작업을 마칠 수 있겠냐’고 했고 우리는 ‘문제없다’고 했다. 아나운서, 성우, 프로듀서가 있으니 기술적인 면만 보완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책임 완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못 보던 사람들과 책상들이 사무실을 채웠다. 업무부 직원들이라고 했다. 이수홍, 이해천, 우윤근, 트리오가 한국일보 광고부에서 고스란히 옮겨 왔던 것이다. 언제 저토록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경영진의 수완에 혀를 내둘렀다. 민간방송은 프로그램 제작부보다 업무부가 더 실권을 쥐고 있다고 했다. 상업방송은 광고주가 내는 광고료로 회사 운영을 해나가는 만큼 업무부가 회사의 주도권을 쥐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그럴 듯 했다.

이때부터 HBC라는 부호는 MBC로 바뀌게 됐고, 나에게도 우선 사가社歌를 만들어 시험 전파 발사 때부터 써야 한다고 했다. 작사가는 누가 좋으냐고 해서 시인 조병화 씨가 좋을거라고 추천하고 종로에 있는 2층 다방 ‘양지’에서 조 시인을 만나 사가 제작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회사 안팎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각종 기자재가 들어오고 전화가 놓이고 손님이 줄을 잇고..... 마침내 시험 전파가 발사되기 시작하자 이제는 틀림없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민간방송’이 나가게 되었구나 하는 실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돌발사건이 생겼다. 우리의 총수 최창봉 형이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이다. KBS가 TV국을 개설하는데 발탁됐다고 했다. 설상가상 최창봉은 정순일, 이호로를 끌고 가버렸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나한테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니. 섭섭함을 넘어 배신 당했다는 느낌이 앞섰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혹 KBS로 올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다. 나는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방송국에 발을 딛게 된 것은 최창봉 형의 권유에서였지만 이제 또 그를 따라 KBS로 간다는 것은 주작머리 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그래서 ‘어디에 있건 작품을 쓰는 게 목적이니 일생을 방송국 직원으로 늙어 죽을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MBC에 남겠다’고 했다. 하루 아침에 친구와 떨어져 황야에 버려진 신세가 된 나의 외로운 그림자. 그것이 곧 드라마일게다.

그러던 어느날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사장실이라야 사무실 귀퉁이를 합판으로 칸막이를 하고, 문에 유리를 반쯤 끼워 단 별실이였다. 들어가 보니 김지태 사장, 정환옥 전무, 김영출 상무, 배준호 부장 그리고 이수홍 업무부장 등이 앉아 있었다. 사장이 나를 부른 이유는 ‘CM과장을 맡으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CM과장이 뭐냐’고 물었다. 방송 프로그램 앞뒤에 내보내는 선전문이 CM이며, CM의 중요성은 일반 프로그램에 못지않다고 했다. “차 과장은 작가라 카던데 CM과장도 할 수 있지요?” 김지태 사장은 파이프인지 니코친 제거기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입에 문 채 내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작가와 CM이라’.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애당초 약속은 드라마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연예과장이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CM과장으로 영전(?)된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HLKY의 연출자 민 구 씨를 데려와서 연예과장에 앉히자니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져서 궁여지책으로 나를 그 자리에 옮기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새 부대에 담아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송을 내보내자던 푸른 꿈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소박하고 청순한 꿈은 사라지고 KBS, KY, 부산 KU와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이른바 ‘경력자’라는 묵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 닥쳤다. MBC는 그렇게 ‘묵은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방송’을 발사하느라고 초인적인 노력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다.

12월 2일이 개국일로 정해지면서 편성부, 제작부는 글자 그대로 장바닥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늑하지는 않으나 차분한 CM과장 자리에 앉아서 드라마가 아닌 한국 최초의 상업방송문을 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1년도 채 가기 전에 나는 다시 연예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민 구 씨는 사직했다. 기구한 운명이었다.

〈1982년 MBC가이드에서 발췌〉



MBC 성우1기생

휴대폰 분실, 회수 전말기顛末記



조정선(편제)

토요일 오후, 아내와 광화문 오피스에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딸아이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명동 입구에 있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단다. 이어폰으로 들던 음악이 끊겨 가방을 확인해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다. 음악이 끊어졌다?

브루투스 기능을 생각하면 불과 10초 사이의 일이다. 의당 근처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테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14:33). 당장 가족이 공유하는 위치추적 어플인 Zenly를 켜다(14:35). 어럽쇼? 딸아이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네! 을지로에서 동대문으로, 신설동에서, 용두역으로, 누군가 그걸 갖고 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일단 문자를 보냈다.

“휴대전화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기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발”(14:42) 이렇게 장소를 특정한 이유는 소지자에게 ‘당신은 추적당하고 있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가끔 신호에 걸리기는 했지만 날썩 범인은 답십리를 거쳐 장한평역, 그러니까 천호대로를 따라 쪽 달려가다가 군자역 지나 우회전하여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다.

나는 ‘타인의 삶’이란 독일영화에 나오는 스타지의 요원처럼 “이것도 흥미롭네?” 하면서 녀석의 이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아이가 산 신형 아이폰의 존재는 잠시 잊고 ㅎㅎㅎ. 그리고 잠시 후, 능동의 어느 주택가에서 멈춰 섰다가 네모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이건 범인이 건물 1층에 주차를 했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갔다는 거

다(14:58). 그런데 위치 표식은 네모안에서 이곳 저곳 조금씩 이동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길 건너편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닌가(15:02) 그리고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렸고,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능동32길 오렌지하우스 앞에 오후 2시 58분에 차 세워놓은 것 압니다. CCTV 추적해서 잡히기 전에 순순히 돌려주세요”

그렇게 1막이 끝나고 상심해 귀가한 딸아이를 보러 아내는 서둘러 오피스를 나갔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1. 딸아이가 분실신고를 하려 했지만 스마트폰의 고유등록번호를 몰라서 안 됐다. 인터넷으로 폰을 구입할 때,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

2. 은행계좌를 막아놓으려 했지만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거절당했다. 이런 x같은 경우가 다 있다. 폰을 잃었는데, 그 폰으로 증명을 해야 하다니!

3. 겨우 동네 경찰서에서 분실 접수를 했지만 경찰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도난신고는 못 했다. 그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112 신고를 해야 빠르단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저녁을 먹고 딸아이와 애초의 분실장소인 명동입구로 갔다(20:57). 멀쩡한 거리에서 벌쭉한 얼굴로 신고를 하니 경찰관 2명이 3분 만에 왔다.

현장에서 딸아이의 진술을 듣고 CCTV 있는 곳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1970년대 장발 단속으로 유명한 명동 파출소를 2021년 한 여름에 절도 신고접수를 위해 들 어섰다. 나는 딸아이가 진술서를 쓸 때 경찰관에게 위치추적 어플인

Zenly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전원만 켜져 있으면 표시된 지점에 휴대폰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 아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하도 밤늦게까지 호텔에 안 들어오니 거기서 전화를 한 시간째 하고 있더라. 호통을 치며 들어오라고 했다. 지금 사는 우리 집에 아내가 있는데 여기 표시된 거 보라. 1미터의 오차도 없다. 지금 당장 가봐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침까지 튀기며 떠들었더니,

“거기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다 들려요”

이렇게 핀잔을 주고는 정말 광진경찰서 쪽으로 연락을 취해 현장 출동을 하게 배려해 주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혹시 신호가 같까 전화를 걸었지만 무음이다. 워낙 갓길에 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어서 오렌지하우스 앞이라는 단서만으로는 수색이 곤란하다 등등... 글썽, 나 역시 Zenly 전도사이기는 하지만 몇 시간째 미동도 하지 않는 표식을 그냥 믿을 수는 없지 않은가.

범인은 벌써 전원을 꺼두었거나, 하수구 따위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버렸을 테지. 일단 파출소에서의 일은 끝났으니 집으로 갈까 하는데, 딸아이가 범인이 마지막 남긴 표식이 있는 그 자리에 가보고 싶단다. 밤이 늦었으니 내일을 기약하자며 택시로 귀가했다(22:30).

이튿날은 가족 모두가 새벽같이 일어났다. 딸아이는 한잠도 못 잤다며, 빨리 현장으로 가보잔다. 아들도 가족의 의리를 발휘해서 따라나섰다. 군자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능동32길 오렌지하우스 앞길은 전날 경찰서에서 얘기한 만큼 번잡하지는 않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도 없었고 오토바이 2대만 덩그러니 있는 정도였다. 일단 휴대폰이 켜져 있다는 걸 가정하고, 계속 전화를 걸어 진동 소음을 찾아내려 했지만 허사.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혹시? 하면서 몰래 뒤져봤지만 역시 허사.

그런데 딸아이가 아빠!하고 부른다. 혹시나 해서 가져간 브

루투스 이어폰에 신호가 잡히더라는 것. 이것은 분명 근처 어딘가에 폰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다세대 한 집 한 집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 끝에 Zenly의 성능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포지셔닝이 된 바로 그 지점에 발을 디디고 사방 1~2미터를 살살이 뒤져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물론 그때까지 17시간 가까이 표식의 이동은 없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위치 표시 된 곳에서 1미터도 안 떨어진 화분 사이에 애타게 찾던 스마트폰이 있었다. 딸아이는 좋아라 펄쩍 펄쩍 뛰고, 물에 빠진 아이를 인공 호흡으로 살려놓은 듯 내게도 벅찬 기쁨이 밀려왔다. 좀 과장하자면, 애 어릴 때 아빠 노릇 못 했던 게 이 한방으로 다 채워진 듯했다. 정말이 작은 물건을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신기했고 신비스러웠다. 하기가 이런 GPS 기능이 있었으니 전동 킥보드 하며, 따릉이 서비스도 가능했겠지.

휴대폰 분실 해프닝은 이렇게 18시간 만에 끝났지만, 결코 해피엔딩으로만 될 수 없는 앙금이 남게 됐다. 딸아이가 명동 파출소로 가서 도난접수를 풀러 했더니 형사사건이라서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단다. 그러면 CCTV를 이 잡듯이 뒤져 언젠가 범인이 잡힐 테고,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지 않나 말이다. 사건을 복기해 보면, 그 작자 참 어리숙하기 그지없다.

증거를 인멸하려면 강물이나 시궁창에 던져버리면 끝. 둔기로 부숴버릴 수도 있고 말이다.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게 해준 것만도 고마워서 미수범에게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심정인데 잡히면 어찌지? 은근히 걱정이 된다.

이번 일의 교훈.

1. 휴대전화 잘 간수하자.
2. Zenly 어플 다운 받고 가족과 공유하자. 분실, 범죄노출, 보안, 안전 등에 유용함.
3. 가족이 힘을 합하면 못 할 게 없다.
4. 아무리 아이 자랄 때 못 해줬어도 한 큐에 만회할 기회는 있으니 기다려라.



멕시코올림픽, 한국 최초의 은메달 현장에서



정진철(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매 경기 치열한 승부를 겨루는 선수들의 투혼을 응원하며 시청하던 중 문득 53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치고 지나간다. 당시 우리의 방송 현실은, KBS TV가 1961년 12월 31일에 개국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는 국영방송이었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KBS는 해외취재를 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1965년 3월 비둘기부대가 첫 파월 병력으로 출발할 때도 종군기자단에 기사를 보내지 못하고 공보처 산하에 같은 소속이었던 대한뉴스가 KBS를 대신해 참가하기로 했다. 당시 KBS 박상진 보도계장이 어느 날 나를 좀 보자고 해서 남산 KBS 보도과로 갔더니 미화 100불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기사를 해외에 보낼 형편이 안되니 당신이 대신 좀 다녀 와 달라'고 해서 줄지에 대한뉴스와 KBS뉴스를 동시에 커버하기도 했다.

1968년 10월,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멕시코시티가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러나 KBS는 멕시코 올림픽에도 아나운서 1명만 보내고 기자와 카메라 기사를 파견하지 못했

다. 그래서 역시 내가 그 소임을 맡게 됐다. 멕시코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종목은 복싱을 비롯해 10개에 불과했고, 그 와중에도 복싱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그 존재감이 없었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대답이 '그곳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였다. 세계지도를 꺼내들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했다. 지도 자체에 코리아가 명기돼 있지 않은 지도가 많았다. 아프리카는 알라도 대한민국은 모르던 기막힌 시절이었다.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합동방송단이 꾸려졌다. MBC TV는 아직 개국하기 전이었다. KBS는 늘 그렇듯 대한뉴스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MBC라디오 임택근 아나운서, KBS라디오 이광재 아나운서, TBC TV 유승삼 기자, TBC라디오 박종세 아나운서, 대한뉴스 & KBS TV 정진철 기자 등 기자 2명과 아나운서 3명이었다.

아나운서는 EM2 소형 녹음기에 중계형식으로 녹음을 한 다음 전화선에 물려 방송을 내보냈다. 처음으로 일본 NHK 화면을 빌려 TV중계를 일부 했다고 하나 NHK가 우리나라 경기를 제대로 중계할 리가 없었다. 어차피 당시에는 TV 보급률이 낮아 라디오가 대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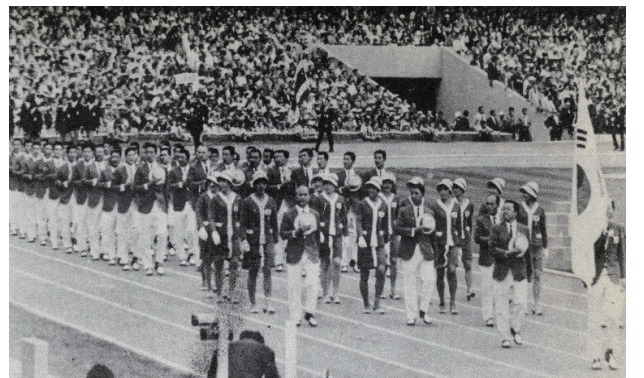
우리는 복싱에서 두 개의 메달을

쟁취했다. 라이트 플라이급 지용주 선수가 은메달, 밴텀급 장순길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용주 선수는 1차전에서 우간다 선수를 이기고 2차전에서는 소련 선수를 판정승으로 이겼으나 3차전에서 홈팀 멕시코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해 2위에 머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은메달은 지금의 금메달보다 훨씬 값진 메달이었다.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시상대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감격에 울지 않은 한국인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북한은 7월 23일 뒤늦게 IOC에 참가신청을 했지만 호칭문제를 놓고 참가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북한이 'North Korea'를 받아들일 경우 전격적으로 참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민관식 KOC위원장, 이병희 선수단장을 포함한 전임원과 취재반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선수촌에 입소했다는 전갈이 왔다. 나는 당장 그들이 있다는 수소로 달려갔다. 정말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멕시코 올림픽 대회에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

있었다.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북한에서 왔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몽골선수단이었는데 어쩐 그리도 우리와 닮았는지.

당시만 해도 우리는 북한을 '북괴'라고 불렀을 정도로 마치 북한 사람들을 무슨 괴물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참한 전쟁을 치른지 얼마 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그럴 수 밖에. 잠시 흥분된 가슴을 쓸어내리고 바로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알려줬더니 그들도 무척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북한은 끝내 호칭을 문제 삼아 참가하지 않았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거리낌 없이 뛰고 달리는 도쿄올림픽에서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느끼며 만감이 교차했던 8월이었다.

문화방송(MBC) 사우회

동화인협동조합
DONG HWA IN COOPERATIVE

문화방송(MBC) 사우회의 상조는 동화인협동조합과 C&G라이프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00%** 후불제 상조



C&G라이프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책임지는 의전 전문 회사입니다.

사우회 상조관련 문의
010-8761-6643

전국 24시간 대표번호
1544-4744